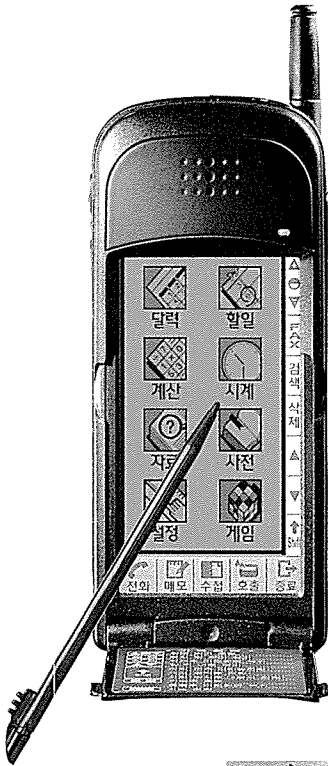


■ LG전자 PDA '멀티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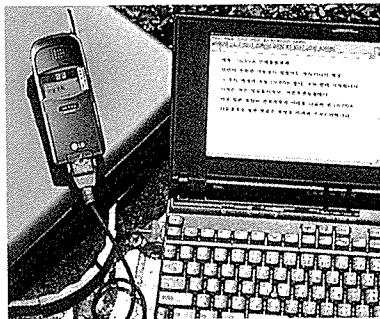


국내업체의 상표가 붙은 PDA(Personal Digital Assistance: 개인휴대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PC기능과 휴대폰, 삐삐, 팩스, 전자수첩 등의 기능이 결합한 PDA '멀티X' (모델명 GPA-1000)를 자체적으로 개발, 국내업체 최초로 판매에 들어갔다.

지난 93년 초부터 3년간 50억원의 개발비를 투자,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멀티

X는 데이터 입출력 제어 회로, PDA데이터 인터페이스 회로 등 총 78건의 PDA 핵심 기술을 국내의 특허로 출원하기도 했다. '멀티X'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153×65.8×33mm, 무게 310g으로 팜톱 PC보다도 훨씬 작아 휴대가 간편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멀티X'의 주요 기능은 휴대폰(아날로그 방식), 광역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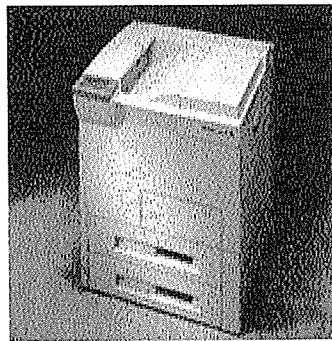
구분	규격 및 성능	구분	규격 및 성능
휴대폰	전화번호부 용량	자료생활전화부	1,200개
	연속통화시간	배터리 제원	Li-Ion
	수신대기시간	디스플레이 용량	200×320dot matri×LCD
삐삐	메시지저장용량	전원	4.2V DC
팩스	수신용량	LCD크기	6장
		동작온도	-20℃~ -50℃
사전	영한사전	크기	153×65.8×33cm
메모	메시지용량	무게	310g

선호출기, 전자수첩 기능 외에 간단한 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는 간이 무선FAX역할도 한다.

특히 별매품인 전용케이블과 PC용 프로그램을 통해 PDA와 PC상호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PDA데이터를 PC에 백업받아 PC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작업한 후 다시 PDA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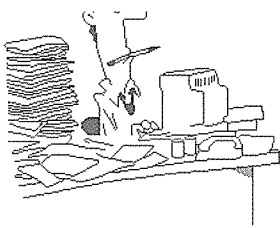
한편 LG전자는 이번 PDA 국내판매를 계기로 올 하반기 중 영문용 PDA를 개발, 본격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중으로 CDMA방식의 디지털 PDA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카피어(Copier), 모피어(Mopier)



종이없는 사무환경을 만든다는 HP는 최근 '디지털 워크플레이스(Digital Workplace)'를 발표하면서 탈 종이문화를 앞장서 주도하고 있다.

고품위 출력물과 스캐닝 이미지를 요구하는 시장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 내세우고 있는 Mopier(Multiple Original Print)는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프린터와 스캐너, 플로터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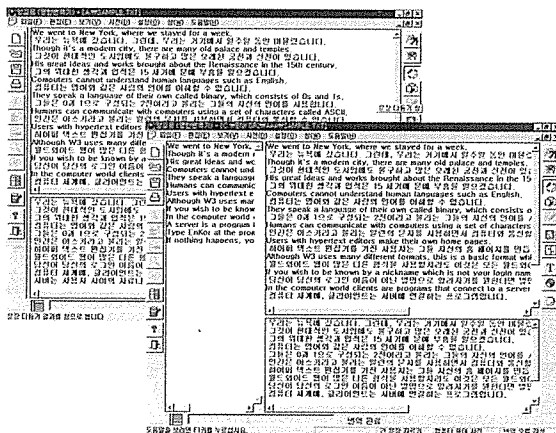
모피어(Mopier)를 도입한 첫번째 레이저젯 프린터인 5Si 모피어는 출력속도가 복사기와 비슷한 24ppm이고 600dpi 해상도에 3천1백장을 담을 수 있는 트레이, 부서나 워크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는 멀티빈 메일박스(Multibin Mailbox)와 스테플러를 이용한 자동 묶음 및 양면 인쇄 등의 혁신적인 기능을 보유, 네트워크 프린터로서 손색이 없다고 한다.

잉크젯의 화려한 명성을 떠올리게 하는 데스크젯 690C와 870Cxi도 있다. 이 제품은 사진과 같은 정교한 이미지 출력을 위한 포토 컬러 킷(Photo Color Kit) 카트리지와 컬러 RET(C-REt)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빠른 속도와 높은 해상도, 현실감있는 이미지 출력이 특징이다.

모피어와 다기능 복사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모피어는 PC와 레이저 프린터를 기반으로 하며,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다르다. 대량의 복사물이 아닌 원본을 만들고 한장을 인쇄하는 비용도 복사기보다 저렴하다. Mopy 자체는 출력보다는 정리, 배포의 의미가 크다.

모피어가 복사기를 대체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피어가 그동안 해 왔던 복사기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 한국IBM사의 영한기계번역시스템 '앙꼬르 2.0'



한국 IBM은 OS/2와 윈도를 지원하는 영한번역소프트웨어인 「앙꼬르 2.0」을 발표했다.

구어체 문장을 제외한 20단어 이내의 문장을 대상으로 90% 이상의 평균 번역률을 보여온 앙꼬르는 문장의 길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A4용지당 2~3분 정도의 번역 속도를 나타낸다.

특히 버전 2.0에서는 20단어 이상의 장문이나 비문법적인 문장의 번역도 가능하며, 번역 결과의 정확도에 따라 3색으로 나누어 표시됨으로써 선택 교정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의 복합어구나 다양한 의미를 지닌 어구를 등록할 수 있는 사용자 사전기능과 의학 공학 등 다양한 전문사전 옵션기능을 제공, 전문 영역에서의 활용성도 크다.

앙꼬르는 서울대학교 자연언어처리연구실과 한국 IBM 소프트웨어연구소의 연구로 개발되어 현재 고등학교 영어 수준의 문장을 번역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 번역률은 90% 이상이다. 펜티엄급 이상의 하드웨어에 16MB 이상의 메모리, 70GB 이상의 하드 디스크가 필요한 앙꼬르 2.0의 가격은 OS/2용이 13만원, 윈도 3.1/95용이 23만6천원이다.

■ 케어사 '옵니페이지 프로 7.0'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진 케어(Caere)의 「옵니페이지 프로 (OmniPage Pro)7.0」은 다른 애플리케이션과도 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서나 스프레드 시트의 메뉴에서 불러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번 버전의 OCR 엔진은 6.0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각 단계에서 초보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OCR위저드와 보다 쉬워진 인터페이스, OCR을 즉석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스케줄러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체인지로 보낸 팩스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스탠드얼론 모드에서는 옵니페이지의 부잉 윈도우에서부터 MS워드와 같은 OLE2.0애플리케이션까지 지원한다. HTML과 같은 모든 표준문서파일로 저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프로그램의 틀바는 자동 혹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작업의 전체적인 모습은 왼쪽의 작은 창을 통해 보여주고, 중앙의 창을 통해서도 확대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교정 도구는 인식된 단어의 비트맵을 확대시켜서 보여준 후, 수정해 준다. 옴니페이지 프로의 교정 도구는 초기 인식시의 에러를 거의 수정할 만큼 우수하지만, 2개의 단어 사이의 빈칸을 찾아내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프로그램 가격은 5백달러, 업그레이드 비용은 1백29달러이다.

■ 스탠더드텔레콤 고속삐삐 개발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스탠더드텔레콤(대표 임영식)이 일반 삐삐보다 전송속도가 5배 이상 빠른 고속삐삐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스탠더드텔레콤이 개발한 플렉스 무선호출방식의 고속삐삐는 전송속도가 6천4백bps(초당 비트전송수)에 달해 기존 폭삭(POCSAG)방식 삐삐보다 5배 이상 전송속도가 향상됐다.

이에 따라 이 제품은 기존 삐삐보다 호출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으며 건전지 수명을 3배 가량 늘렸다. 삐삐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파수당 가입자수를 3~5배 가량 늘릴 수 있으며 특히 문자서비스 등 데이터통신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플렉스방식은 미 모토로라사가 개발한 무선호출방식으로 현재 미국, 중국 등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중 국내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스탠더드텔레콤은 올해 말부터 미국시장에 월 3만개, 중국시장에 월 1만개 가량 수출할 계획이다.

■ 저궤도 위성통신

세계를 하나의 통화권으로 묶는 저궤도 위성통신(GMPCS)이 98년부터 본격 상용화된다. 즉 북극과 에베레스트산, 고비사막, 아마존의 정글 등 특수장비가 없으면 전화통화란 꿈도 꿀 수 없었던 오지중의 오지에서 누구나 휴대전화같은 간단한 단말기로 전화는 물론 팩스와 페이지, 데이터통신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경없는 이동통신」으로 불리는 GMPCS는 지상 7백80~1만4천km 상공에 떠있는 수십개의 통신위성이 개인휴대통신(PCS)을 중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산간 오지는 물론 중계기 설치가 어려운 세계의 오지 어느 곳에서나 통화가 가능해진다. 통화의 사각지대가 극소화되는 「꿈의 통신」이 현실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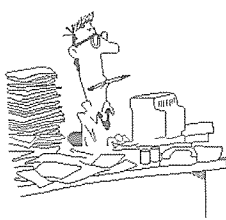
더구나 PCS단말기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하나의 번호로 통화가 가능해지고 2세대 위성이 발사되는 2003년이면 화상전화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동통신 徐廷旭사장의 표현을 빌자면 “PCS가 택시라면 GMPCS는 모범택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통신품질이나 서비스의 질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비유다.

미국의 모토로라는 「이리둠」, 로랄과 쉘컴은 「글로벌 스타」, TRW는 「오디세이」, 영국의 인팔레트는 「ICO」라는 이름의 GMPCS프로젝트를 각각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한국이동통신이 「이리둠」프로젝트에, 데이콤 현대전자 현대종합상사가 「글로벌 스타」에, 한국통신 삼성 신세기가 「ICO」프로젝트에 각각 공동투자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지분은 대략 4~6%선. 금호와 대우중공업도 미



국 TRW의 「오디세이」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업계는 초기단계에선 비싼 장비가격 때문에 가입자가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초 가입자는 2000년에 2백10만명, 2003년에는 전체 이동통신 수요의 4%선인 1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이같은 수요 예측은 최근 다시 상향 수정되고 있다.

뉴욕증시 등에 상장된 관련 주식은 이미 4~6배 정도 뛰어오른 상태이고 세계 유수의 통신사업자들은 GMPCS에 미래를 걸고 있다.

그러나 GMPCS 상용화에는 넘어야 할 고개가 적지않다. 국가간 이해타산과 기술적 난제가 그것이다. 우선 GMPCS가 공통적인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각국이 운용해온 주파수를 재분배하는 문제가 따른다.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번호를 사용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중복된 번호를 쓰지 않도록 번호체계를 재정비하거나 교환기의 지능망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신주권의 문제도 침예한 이슈중의 하나인데, 외국인인 체류한 국가의 통신선로나 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하늘에 떠있는 위성을 통해 곧바로 통화가 가능해져 이른바 「통신 속지(屬地)주의」가 무너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정보통신번호체계

최근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의 기초를 선경쟁체제 후시장개방으로 방향을 잡고 PCS, CT-2, TRS, 국제전화 등에 27개사의 신규통신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21세기 국가 핵심기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코자 초고속망 사업자 선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체제의 도입과 새로운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과거 시외전화번호, 이동통신전화번호 등으로 인식된 전기통신번호체계는 새로운 조명이 불가피한 실정에 직면하고 있다.

번호계역	사용중인 식별번호	여유식별번호
00X	001 한국통신국제, 002 데이콤국제 003 데이콤부가, 007 한국통신부가 009 한국통신부가	000, 004, 005 006, 008
01X	011 KMT 이동전화, 012 KMT 무선호출, 013 특수망, 014 데이터망, 015 무선호출, 017 신세기통신, 018 PCS	0130, 0132~0138, 01430~01499 016, 019
02X, 03X, 04X, 05X, 06X	유선전화망 지역번호(시외전화)	
08X	080착신과금, 081한국통신장거리, 082데이콤장거리	083~089
07X 03X	남북통일 및 번호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 식별번호계역	07X, 09X 계열전부
11X	특수번호 113, 119 등	

또한 신규 정보통신서비스의 다양한 출현과 사업자의 확대대로 번호자원도 무한한 것이 아닌 유한한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산업정책 수립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통신망 식별번호란 복수의 통신사업자가 공존할 경우 사업자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서로 다른 통신망간에 원활한 접속을 위하여 각 통신망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현재의 식별번호체계는 전기통신번호관리 세칙에 의해 지정, 운용되어 왔으며, 1996년 5월 현재 0XX계열의 배정현황 및 여유식별번호를 정리하면 위와 같다.

여유식별번호란 정보통신번호중에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번호로서 사업자들이 통신사업을 위해 사용 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특히 01X 계열의 통신망 식별번호의 예비번호는 극히 한정되어 있어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 계열의 가용번호는 016, 019이다.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자나 망을 위해서 현행 3자리 식별번호를 4자리 혹은 5자리로 늘려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⑤7